

설교제목: “예수님의 마음”

설교본문: 마태복음 11 장 28~30 절

2015 년도 교회표어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시며,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늘 만나는 사람이나 심지어 가족도 어떤 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다.

그런데, 어찌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쉽게 알 수 있겠는가? 혹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

우리는 남의 생각과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대화를 한다.

대화는 다른 사람의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과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말하지 않고, 남이 자기 생각과 마음을 알아 달라고 한다면 오해도 많이 생길 수 있으며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마음까지도 모두 말씀하셨다. 성경말씀을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지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을 등한시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무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며, 예수님을 사랑하다면서 진짜는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다.

오늘 본문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나와서 인생의 주인이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대화하자고 초청하신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평안, 곧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셨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가 아는 온유하다는 말과 겸손하다는 말을 생각한다.

늘 웃는 친절할 얼굴이 생각날 것이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떠오를 수 있다. 잘 짜증내지 않고 귀찮은 부탁을 해도 얼굴 찡그리지 않고,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생각날 수 있다.

신분이 높지만 자기 높은 신분을 과시하지 않고, 자기 높은 신분으로 남을 깔보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다.

타고난 좋은 성품, 잘 훈련된 좋은 성품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사회는 주변에 얼굴 찡그리고 거친 말하며 불친절한 사람들이 참 많다. 또 잘 난 체 잘하고 의지 대며 남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잘 대해주면 쉽게 친해진다. 한국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쉽게 그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같은 동양 사람이라도 중국 사람은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도무지 읽어낼 수 없다고 한다. 좋은지, 나쁜지 숨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같은 동양 사람이라 해도 일본사람들은 더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없다고 한다. 오히려 화가 날 때, 실실 웃으며 더 친절할 체, 겸손할 체 하기 때문이다.

오래 전에 일본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 때, 일본하면 전기, 전자제품을 알아주던 그런 시대였다. 그래서 가전제품 파는 백화점을 찾아간 것이다.

아마 오전 9시에 백화점이 시작되는데, 한 10분전에 도착하였다. 유리로 된 현관을 보니 그 안에서 여자 점원들이 예쁜 유니폼을 입고, 공손히 줄을 서서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연습하는 모습이 보였다. 계속 그 안에서 그렇게 인사를 연습하고 있었다.

5분전이기에 유리 회전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경비로 보이는 남자가 무언가 큰소리로 말하며 화를 내었다. 말은 못 알아들었지만, 아직 시간이 안 되었는데, 왜 들어왔냐는 것이다.

멋쩍게 다시 나와 시간이 되어 들어갔다. 그랬던 그 경비를 비롯하여 전 여자 직원들이 큰소리로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아주 반갑게 미소를 지으며 90도 숙여서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게 인사를 하였다.

바로 직전까지 화를 내며 소리 지르던 경비도 똑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인사를 하였다.

다른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를 대해 주면, 고맙고 또 기분이 좋다. 그러나 그것이 겉으로만 그렇고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면 세상사는 일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예수님께 예수님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며, 그 마음을 알고 배우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와 겸손은 우리가 일부러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온유한 태도와 겸손한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한 사람을 말한다면, 모세다.

구약성경 민수기 12:3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왜 모세를 하나님은 온유하다고 말씀하셨는가?

모세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지도자이다. 그런데 구약성경을 보면,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 중에는 히브리 사람들 말고도,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이집트 사람들과 또 아프리카에서 끌려와 노예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처음엔 같이 이집트 땅에서 같이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었기에,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자, 끼리끼리 모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척하며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다. 갈등이 생겨도 심각하게 된 것이다.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같이 살게 된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해도 광야 생활이 힘들터인데, 서로 다투고 배척하게 되면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다.

지도자 모세는 고민하다가 해결책을 찾는다.

마침 모세는 자기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 혼자 몸이 되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들 중,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가 봤더니 아프리카인이었다. 아마 외모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이들이 피부 때문에 미움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기도하며 고민하던 모세는 자기 새 부인으로 아프리카 여인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외모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모세 가족이었다. 형과 누나가 모세가 아프리카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자 노발, 대발하며 모세에게 야단을 쳤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과 누나에 화를 내시면서 왜 내 종 모세가 잘한 일을 너희가 뭐라고 하느냐 말씀하시며, 모세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다고 말씀하셨다.

온유란 나 외의 사람을 그 어떤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고 나처럼 존중하고 사랑하며 품는 마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친절, 억지로 짓는 미소로 남에게 잘 보이려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모세를 비난한 죄로 잠시 문둥병이 걸려 그 얼굴과 몸이 아주 흉칙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의 외모를 비난하다가 자기가 외모가 끔찍한 사람이 된 것이다.

우리는 모세보다도 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떤 조건이 있어야 잘 대해 주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우리가 호감이 가고,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좋아하고 친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조건이 없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로 알지 못하고 못 만난다.

우리는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접근해도 아무 감사함과 반응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가운데, 그 사랑을 느끼고 있다. 그 사랑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에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님께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예수님에게 사랑을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또 예수님께 사랑하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마음이 다.

나를 사랑하시되 그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온유하신 예수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 높은 신분을 낮추시어, 나를 친구로 삼으신 겸손하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자.